

‘공익직불 협의체’ 전국서 벤치마킹

전남도, 규제 전봇대 싹둑·만원주택 등 도정 빛낸 10대 시책 선정 직불금 지급 전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 이행 독려...2300억 감액 예방

지난 2022년 전민도가 전국 최초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업무협약체제를 구성해 소통과 협업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해 ‘전남형 공익 직불 협의체’가 올해의 최우수 시책에 선정됐다. 이 시책은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전민도는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 전 영농일지 작성, 필수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를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해 전남 471억원을 포함한 전국 2300억원의 감액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민도가 21일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시책 30건을 대상으로 도정 직원 내부 심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를 거쳐 2023년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을 선정했다.

선정 시책은 전남형 공익직불 협의체 전국 확대를 비롯해 우수시책으로 ▲전남 해상풍력 규제전봇대 세 개나 싹둑 ▲전국 최초 청년 맞춤형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제104회 전국제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천만 육박 2023 순천만국제제정원박람회 흥행 신기록 등 4건이, 장려시책으로 국립호국원 유치 등 5건이 선정됐다.

‘전남 해상풍력 규제전봇대 세 개나 싹둑’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의 장애물이었던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架空) 송전선로 허용 등 3개 규제를 선도적으로 해결, 대한민국 해상풍력산업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 청년 맞춤형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대폭 경감,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을, ‘제104회 전국제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는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글로벌 관광·체육·문화 도시 전남도의 성장 잠재력을 국내외에 과시했다는 점을 인

정받았다. ‘1천만 육박 2023 순천만국제제정원박람회 흥행 신기록’은 10년 전 2013 정원박람회 성과(440만명·수익 164억원)와 비교해 2배를 뛰어넘는 흥행 신기록(981만명·수익 333억원)을 달성, 세계적 정원축제로 도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장려시책은 ▲국립호국원 유치 성공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및 역사문화환경 정비 육성 선도사업 전국 최다 선정 ▲지역·대학 동반성장, 세계로 웅비(RISE) ▲서남권 최초 국립해양수산물 박물관 건립사업 순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류 아동) 자립 지원 강화가 선정됐다.

전민도는 올 한 해 도민이 행복할 전남 실현을 위해 10대 시책을 비롯한 다양한 선도적·수혜적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했다. 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해 전남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전 국민의 이익이 집중된 메가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남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AI·블록체인 인재 육성 성과

취창업 123명·대학 경쟁력 강화...2단계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키로

전민도가 디지털뉴딜 1호 사업으로 추진한 전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1단계사업이 전문인재 육성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등 성과를 거둬 따라 이를 바탕으로 2단계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민도는 전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1단계 성과보고회를 지난 20일 광양 커뮤니티센터에서 열어 성과를 공유하고,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ICT이노베이션 사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융복합 분야 전문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인력 순환구조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광양시, 사업 수행기관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10여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 보고와 향후 추진 전략 발표 및 정책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전민도는 2020년 8월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국비 62억원, 지방비 19억원, 총 81억원을 투입해 1단계 사업을 추진, 광양 중앙동에 소재한 광양커뮤니티센터에 776㎡ 규모의 교육실, 융복합공간 등 교육 운영 거점을 구축했다.

또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사물인터넷, 온라인코딩 등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을 통해 4년간 1825명의 교육 수요생을 배출했다.

기업 재직자 외 구직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112명의 취업과 11명의 창업을 지원했다.

당초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ICT이노베이션사업은 지역 전문 인력 양성 등 성과 창출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2025년까지 2년간 연장돼 2단계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협업으로 의제 발굴

의원 연구단체, 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6개 성과물 발표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학계·전문가·시민단체 등과 협업, 의제 발굴을 통한 6개의 성과물을 발표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21일 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 단체별로 올 해 총 6건의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발표된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는 그동안 의원 연구모임의 자체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함께해 왔던 학계·전문가·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 용역별 과제는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한 ‘광주시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 혁신 및 조례 기반 구축 방안 연구’ ▲지역 창업 경제 성장을 위한 모델 발굴 방안을 제안한 ‘광주시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조례 구축 방안

에 관한 연구’ ▲보행자 중심의 보행 환경 조성과 개선을 제안한 ‘광주 차 없는 거리 조성 기본 계획’ ▲지역 물산의 외곽 현상 해소를 통한 도시재생 연결 방안을 제시한 ‘복개하천 복원과 수변 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연구’ ▲청년들의 효율적인 재난 안전 교육 훈련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하는 ‘광주시 청년 안전의식 분석 및 재난안전 교육·훈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 전문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 방안을 강구하는 ‘광주시 장애인문화예술과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및 공연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등이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번 정책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광주시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 문화예술 민간단체 내년 30억 지원

문학·시각·공연예술 보조사업자 다음달 22~25일 공모

광주시는 ‘2024년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문학, 시각예술(미술, 서예, 사진, 장애인문화), 공연예술(국악, 무용, 연극, 클래식 음악, 대중·다원) 등 3개 분야 10개 장르이며, 총 사업비는 29억96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단체이며, 최근 3년 이내 신청 관련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법인·단체별로 2개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5% 이상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공립·시립예술단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연례적·반복적 출판물 발간에 대한 지원은 축소한다.

또 신청 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접심사를 발표 방식에서 인터뷰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의 고유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식비·홍보비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한다.

신청서는 내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시청 1층 민원실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2월 장르별 심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청

대우위니아발 지역경제 위기 극복...금융 등 25개 맞춤 지원

광주시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우위니아 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개시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주요 산업 분야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 폐쇄나 이전 등이 발생하면 해당 산업과 지역 경제의 신속

한 회복을 지원한다.

산자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된 범부처 회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가전산업이 광주시의 주된 산업인지, 현재 지역 가전산업이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위기 상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상담 등 25개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다. 현재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의 1차 협력업체는 346개사로, 피해액만 11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광주지역 협력업체의 피해는 133개사 829억원에 달한다.

협력업체들이 몰려있는 광주 하남·진곡·평동 산업단지는 지난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광주 광산구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식성,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